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새벽정리 말씀(편집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내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안합니다. 어떤 것에 처했을 때 자꾸 안 된다 생각하면 불안하고, 자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면 생각으로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으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꼭 기도는 절대적으로 생활입니다.

생활이란 무엇과 같은가 하니 극적으로 말하면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숨을 안 쉬면 오래 못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안하면 기도를 하라! 기도하면 운명도 바뀌니까.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에 회박하면 안 됩니다.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화! 늘 대화를 하라! 간구하라! 애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환경이 되는 대로 달려 가다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니,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사귀처럼 물결치는 대로, 계곡의 물이 흐르는 대로 쭉서 박혔다 또 올라왔다 뱅뱅 돌았다 하며 물이 가는 대로 따라 가게 됩니다. 나뭇잎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집니다. 생활에 흘러가는 인생들은 환경 따라 그렇게 가집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물결가는 대로 안 갑니다. 물결은 저쪽 동으로 가도 배는 사람이 조종을 하니까 물결 따라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흐르는 대로 가집니다. 이리 가지고, 저리로 가지고, 환경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한 두 번해서 안 되면 10번, 10번 해도 안 되면 100번, 100번 해도 안 되면 1000번, 1000번 해도 안 되면 10000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성>이 없습니다. <도전>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해 보고 또 해 보고! 도전에 약합니다. 또 어디서 도전하는 것을 배웠는가 하니,

물새가 강 언덕 절벽을 기어 올라갈 때, 높이니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7-8번을 하는 것을 보고 ‘7전 8기로구나. 나도 한두 번 해서 안 되겠구나.’ 배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실력껏 해 봅니다. 내게는 실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그 실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시 돌려놓는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된다고 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신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기어이 끝까지 하는 것! 내가 국민학교 때 토끼 쫓아가서 기어코 잡아오고, 밤새도록 나무 베어서 끊어 갖고 오고! 도전성이 있습니다! 도전할 때 스틸이 있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현대의 젊은이들은 도전성이 약합니다. 마음은 좋은 것을 원하고, 몸은 편하려고 하는데 도전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 신앙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에서 항상 도전해야 됩니다.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흘러올 때 얼마큼 도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좋아지고 그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성사시킬 때도 그저 다섯 여섯 번, 열 번 같은 것은 숫자에 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약하면 조금 하다가 맴니다. 강해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또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도전했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시편 23장에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했습니다. 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돕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얻을 것이 있는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을,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폐 끼친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폐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빛을 지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보지 마세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멀리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온 지구상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인생들을 살핀다.”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봄이 합당합니다. 어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임금을 처음 사귄 때는 법니다. 그러나 가깝게 일도 많이 해 주고, 그 말도 들어 주고, 그리고 착실하게 일하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심복이 되기도 하고, 양자가 되기도 하고, 그로 아들을 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보니까 결국 부자지간 관계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터전 위에서 시대도 되고 한니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너 회는 이의 말을 들어라.” 하며 아들같이 2000년 동안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남같이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심부름 시키면서 종같이 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너무 친하니까 한 형제같이 대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애인으로 대하고 같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어떻습니까? 비유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멀었는데,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서 하늘과 하나가 돼서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시대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세운 조건을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지 적적했지, 산골짜기에 살았지, 친구도 없지, 사는 사람도 없지, 사람 사귀려고 하지도 않지, 바보라고 그러지 미쳤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이 애인 시대에도 그렇게 순서를 거쳐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누구든지 나와 가까이 살려면 내 심정에 맞아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미도 필요 없다. 몸짱도 필요 없다. 오직 나의 마음에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딱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인생들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 못 합니다. 나와도 동행 못 합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중심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맞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변하시지. 하나

님께서는 추풍낙엽처럼 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믿겠네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여름에는 신록의 계절 같고, 가을에는 역시 오색 단풍이 휘날리는 하나님이어서 화창하고 화려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옷도 입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을 되었는데 여름철 옷 입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가을같이 울긋불긋 맞추어야지요. 그리고 겨울 되면 겨울 옷 입고 다녀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러합니다. “내 좋은 대로 하라. 니 좋은 대로 살지 마. 니 좋은 대로 1000년 살지 말고 내 좋은 대로 하루를 살아라. 그래야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자기 좋은 대로 천년을 살아도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로 하루라도 살아야 하늘나라에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섭리사 사람들이 장사합니까? 장사하면 손님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을 찾는가?’ 거기에 맞게 금방 내놓으면 그날 다 팔려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인생을 살면 그날 봉 뜬다는 것입니다. 팬텀기가 되고, 제트기가 됩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이치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안 듭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성격도 고치고, 행실도 고치고. 내가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매하러 왔습니다. 중매자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중매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 남자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그만큼 닦아졌으니까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못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닦아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사람 볼 줄을 압니다. 그 전에는 못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그만큼 닦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존재자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을 좋아하신다.”

선생님도 하늘 앞에 눈에 띄기까지는 진짜 노력입니다. 노력한 것입니다. 인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았습시다. 선생님의 제자라면 선생님을 닦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면서 나가자고요.

그러면 나는 좋은 곳에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

왜 우리의 목자가 되는가 하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것은 양이 목자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좋은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곳도 주시고, 쉴만한 환경도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섭리사로 오게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마음이 편하게 해 주시고, 쉴만하게 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 준 것을 깨닫고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잘되고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새로 온 사람들에게 늘 정신과 모든 행실을 강하게 잡아서 나이는 어려도 정신 연령이 강해서 능히 다스려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삼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 마쳤습니다. 안녕.

